

## 쿠파란 시편 필사본(11Q5[=11Ps<sup>a</sup>])의 본문 형태 분석

김정훈\*

###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11Q5(=11QPs<sup>a</sup>)”<sup>1)</sup>로 표시하는 쿠파란 시편 필사본은 1956년 2월 초에 베두인들이 발견하였다.<sup>2)</sup> 하지만 정확한 장소는 나중에 이루어진 학술적 발굴 과정에서야 밝혀졌다. 이 필사본은 원래 길이가 5.3-5.6m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5m 정도만 복원될 수 있었다. 필사본의 높이는 26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지금은 대략 15-18cm 정도만 복원되었다. 현재 28단(columns)이 남아 있으며, 제각각의 단은 원래 25행으로 필사되었지만, 지금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Dr. Theol.)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ihoze@hotmail.com](mailto:ihoze@hotmail.com).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4840).

- 1) 쿠파란 문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약어 체계와 일련번호 체계가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일련번호 체계로 표기한다. 이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04-105를 보라. 전체 쿠파란 문헌의 목록은 참조, E. Tov, ed., *The Text from the Judaean Desert: Indices and an Introduction to the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Series*, DJD XXXIX (Oxford: Clarendon Press, 2002).
- 2) 11Q5의 발견 및 발굴, 필사본의 특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편집 본문은, J. A. Sanders, ed., *The Psalms of Qumran Cave 11 (11QPs<sup>a</sup>)*, DJD IV (Oxford: Clarendon, 1965); J. A. Sanders, ed., *The Dead Sea Psalms Scroll*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또한, 나중에 편집된 첫 부분 단편은 F. G. Martínez, E. J. C. Tigchelaar, and A. S. van der Woude, eds., *Qumran Cave 11. II: 11Q2-18, 11Q20-30*, DJD XXIII (Oxford: Clarendon, 1998); 그리고 이 필사본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Rekonstruktion, Textbestand, Struktur und Pragmatik der Psalmenrolle 11QPs<sup>a</sup> aus Qumran* (Leiden; Boston: Brill, 2003)을 보라.

은 대개 15-17행, 드물게 18행을 복원할 수 있다. 고문서학(paleography)의 고찰을 바탕으로 이 필사본은 기원후 30-50년 무렵에 필사된 것으로 여긴다.

11Q5는 필사본 자체의 고대성과 더불어 비교적 많은 양의 본문이 남아 있어서 가치가 높다. 이 필사본은 101편부터 시작하여 모두 48편의 개별 시편을 담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히브리어 정경 시편 5권에 드는 시들이지만, 흥미롭게도 이 가운데 시편 본문이 아니거나(삼하 23:1-7), 정경에 들어 있지 않은 시편들(151A, 151B, 154, 155편; 집회 51:13-30; 다윗 저작, 시온 시편, 창조주 찬양, 구원 탄원, 연작)이 포함되어 있다.<sup>3)</sup> 그런데 이 필사본은 이런 점보다 개별 시편의 배열이 마소라 본문과 다르다는 점이 두드러진다.<sup>4)</sup> 그래서 11Q5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과 다른 시편 배열의 문제였다.<sup>5)</sup> 핵심이 되는 논의는, 마소라 본문과 차이를 보이는 11Q5의 시편 배열이 이 당시 여전히 유동적이었던 정경화의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인지,<sup>6)</sup> 아니면 정경과는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형성된 특이한 경우인지<sup>7)</sup>였다. 이들 연구는 시편의 정경화와 더 나아가서 구약성경의 정경화를 둘러싼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11Q5의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sup>8)</sup>

하지만 본문비평 관점에서 이 필사본의 본문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대표적으로 다멘(Ulrich Dahmen)이 11Q5에 관해 상세한 논의를 하지만,<sup>9)</sup>

- 
- 3) 이 시편들에 대한 연구로는, D. Dimant, "David's Youth in the Qumran Context (11QPs<sup>a</sup> 28:3-12)", J. Penner, et al., eds., *Prayer and Poetry in the Dead Sea Scrolls and Related Literature* (Leiden: Brill, 2012), 97-114; M. R. Lehmann, "11QPs<sup>a</sup> and Ben Sira", *RQ* 11 (1983), 239-251; R. Polzin, "Notes on the Dating of the Non-Massoretic Psalms of 11QPs<sup>a</sup>", *HTR* 60 (1967), 468-476; J. A. Sanders, "Two Non-Canonical Psalms in 11QPs<sup>a</sup>", *ZAW* 76 (1964), 57-75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말 연구로는, 이환진, "쿰란 공동체가 남긴 『시편 두루마리』(11QPs<sup>a</sup>) 속의 일곱 시편", 『신학과세계』 53 (2005), 7-35를 보라.
- 4) 정경에 든 시편을 중심으로 11Q5의 시편 배열을 MT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01-103; 109; 118; 104; 147; 105; 146; 148; 121-132; 119; 135; 136; 118; 145; 139; 137; 138; 93; 141; 133; 144; 142; 143; 150; 140; 134.
- 5) 연구사의 일목요연한 정리로는, 김정우, "시편 본문비평에 있어서 70인역과 쿰란 사본의 위치와 가치", 『성경원문연구』 3 (1998), 291-317; 김정우, "쿰란의 성서 시편들과 11QPs<sup>a</sup>의 배열 문제 및 그 정경적 함의", 『Canon & Culture』 2:1 (2008), 89-120; 유윤중, "사해사본 11QPs<sup>a</sup>와 시편의 정경화", 『신학논단』 43 (2006), 235-248; 이윤경, "쿰란 시편사본과 페세르 시편을 통해 본 쿰란공동체의 신학", 『Canon & Culture』 10:1 (2016), 147-171 등을 참조하라.
- 6) J. A. Sanders, *DJD IV*; P. Flint, "The Book of Psalms in the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VT* 48 (1988), 453-472; P. Flint,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Leiden, et al.: Brill, 1997) 등.
- 7) M. H. Goshen-Gottstein, "The Psalms Scroll (11QPs<sup>a</sup>): A Problem of Canon and Text", *Textus* 5 (1966), 22-33; S. Talmon, "Pisqah Be'emsa' Psuq and 11QPs<sup>a</sup>", *Textus* 5 (1966), 11-21; P. W. Skehan, "A Liturgical Complex in 11QPs<sup>a</sup>", *CBQ* 35 (1973), 195-205 등.
- 8) 이러한 논의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는, P. Flint,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186-198을 참조할 수 있다.

그의 관심은 11Q5가 초기 유대주의의 시편 수용 양상 분석에 있다. 따라서 그는 11Q5의 본문이 본문비평이나 본문역사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해 버린다.<sup>10)</sup> 이는 그가 체계적인 본문 형태 분석을 통한 본문 역사적 고찰을 하지 않은 탓이라 여긴다. 실제로 그는 11Q5의 본문 이형들을 논의 하면서<sup>11)</sup> 마소라 본문과는 다르지만 칠십인역과 일치하는 용례들은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11Q5가 본문비평이나 본문역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한 그의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어떤 이형이든 비의도적 변화에서부터 의도적 수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과 여러 층위가 엮보이는 11Q5의 본문 이형들은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11Q5의 본문 형태 자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형들(variants)의 특징을 분류해야 한다. 이는 개별 이형들이 마소라 본문과 구분되는 본문 전통에서 비롯했는지, 필사자 또는 본문 형성자의 의도적 수정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서 먼저 과연 이 필사본의 본문이 어떤 본문 전통에서 있는지, 다른 본문 전통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본문역사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가늠하고자 한다. 올리히(Eugene Ulrich)의 편집본을 바탕으로 11Q5와 다른 본문증거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형들은 모두 375개이다.<sup>12)</sup> 특히 이 필사본의 원래 필사 본문(11Q5\*)의 이형(337개)과 필사본 자체에서 그것을 수정한 수정 본문(11Q5<sup>corr</sup>; 38개)을 구분하여 제각각 본문 형태와 그 역사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기원전 1세기의 본문역사에서 11Q5가 보여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원-본문(11Q5\*) 이형의 특징

### 2.1. 11Q5\* ≙ (MT=LXX)

#### 2.1.1. 본문이 다른 경우

11Q5의 이형들 가운데 이 범주에 드는 본문 형태, 곧 11Q5만 다른 본문

9) 참조,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67-318.

10) Ibid., 313.

11) Ibid., 101-266을 보라.

12) E. Ulrich,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Vol. 3* (Leiden: Brill, 2013), 694-726에서 언급하는 이형 분석을 보라. 또한, P. Flint,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69-80과 견주어 보라. 필사본 편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판단과 필사본 사진은 J. A. Sanders, *DJD IV*를 참조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올리히의 편집본을 기본 자료로 삼으며, 샌더스의 책에 있는 필사본 사진과 본문 상태 판단으로 보충하여 분석한다. 이 이형 수에는 11Q5와 다른 쿨란 성경 본문의 이형도 포함되어 있다.

을 내보이는 용례가 가장 많다.<sup>13)</sup> 먼저 본문 길이에겐 차이가 없고, 11Q5가 다른 본문을 제공하는 용례가 눈에 띈다.<sup>14)</sup> 대부분은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에 전승된 본문과는 다른 본문 형태를 추측하게 하는 것들이다. 첫 용례로 보기를 들자면, 시편 102:18에서 ‘기도’를 뜻하는 마소라 본문의 연계형 명사 תְּפִלָּה(=4Q84)와 칠십인역의 τὴν προσευχήν을 11Q5는 ‘벌레’를 뜻하는 명사 תולעת로 쓴다. 직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차이이다. 그런데 이 낱말에 이어 절대형으로 쓰인 명사 תְּפִלָּה는 이곳과 예레미야 17:6에서만 쓰여서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시편의 본문에서 이 낱말을 τῶν ταπεινῶν(‘비천한 사람들의’)으로 옮겼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ἡ ἀγριομυρική(‘떨기나무’)로 옮겼다. 아마도 11Q5의 본문 전통은 후자의 의미 이해가 바탕이 될 것이다. 두 전통 가운데 본문비평 관점에서 어느 전통이 더 오래되었을지는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 여호와가 ‘혈뺨은 이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말과 좀 더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떨기나무의 벌레’를 돌아보신다는 말이 엇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11Q5 필사자의 수정인지, 그 이전 본문 전승을 반영하는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sup>15)</sup>

이처럼 개별 이형들은 제각각 본문비평 관점의 판단을 거쳐야 본문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용례들은 적어도 이 필사본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든 오늘날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으로 전해진 것과는 구분되는 본문의 전승이 존재했음은 분명히 보여 주며, 11Q5는 그 독자적 본

13)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이 일치하고 11Q5만 다른 경우는 모두 143번 찾아볼 수 있으며, 히브리어의 문제이거나 칠십인역이 의역하여서 칠십인역의 일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44번의 용례도 더 있다. E. Ulrich, *The Biblical Qumran Scrolls*, 694-726의 이형 분석에서 “11Q5 ] MT” 조합의 이형들을 보라. 흥미로운 보기를 들자면, 시 128:5; 129:4에서 마소라 본문은 신명사문자 יהוה를 쓰는 데 비해, 11Q5는 אֱרוֹנִי(‘주님’)를 쓴다. 여기서 칠십인역이 κύριος(‘주님’)로 옮긴 것은 어떤 것을 대본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

14) 우리는 여기서 용례의 원문을 다 쓰지 않고, 구절 뒤 괄호의 숫자로 이형들을 구분한다. 구절 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필사본 해당 단의 행을 뜻한다. 그리고 위 첨자의 숫자는 같은 행에서 이형이 여럿 표시되었을 때, 그 순서를 일련번호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시편 순서를 11Q5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세한 본문은 E. Ulrich, *The Biblical Qumran Scrolls*, 694-726을 찾아보라. 참조, 시 102:18(1), 26(8<sup>1</sup>); 118:27(3); 104:1(7), 4(10<sup>2</sup>), 29(8<sup>3</sup>), 31(10); 105:3(10-11), 11(16); 148:5(9); 121:5(4), 8(6); 122:4(10); 125:1(3); 130:2(11<sup>1</sup>), 7(15); 132:12(5<sup>2</sup>), 16(8); 119:2(12), 5(15), 37(1<sup>1</sup>), 82(1), 83(2<sup>1</sup>), 83(2×2), 87(6), 106(2<sup>2</sup>), 107(3<sup>1</sup>), 108(4<sup>2</sup>), 117(13<sup>1</sup>), 129(2), 130(3), 131(4<sup>2</sup>), 142(15<sup>1</sup>), 152(3<sup>1, 2</sup>), 153(4), 162(14), 175(6); 135:5(11), 5(12), 6(12); 136:3(7); 145:1(7<sup>1</sup>), 2(9), 18(11), 20(14); 139:10(1), 14(5<sup>2</sup>), 15(6), 16(8<sup>3</sup>); 93:1(17<sup>2</sup>); 141:5(1); 144:3(14), 15(15); 150:6(7); 140:4(14).

15) 비교,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103-104. 다멘은 여기서 절대형을 쓰인 낱말에 대해 관찰하지 않아서, 11Q5의 본문을 후대의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주의한 판단으로 여길 수 있다.

문 전통을 드러낸다.

한편, 본문이 달라지는 경우는 비슷한 자음 본문 사이의 차이나, 자음 본문 순서가 바뀌어서 생긴 이형(metathesis)도 있다. 이런 보기에서는 본문 필사 과정에서 생겼을 필사 오류가 제각각 다르게 전승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시편 139:15에서 마소라 본문은 인간 창조의 전통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자 자신의 뼈대(עצמי; ‘저의 뼈’)를 지으셨다고 고백하며, 칠십인역도 여기에 따라 τὸ ὄστούν μου로 옮긴다. 그런데 11Q5는 ענבי(‘저의 형상’)로 쓴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정방형 자음 מ과 כ 사이의 혼동에서 온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명사 ענב가 구약성경에서 ‘우상’을 뜻하는 경멸적인 용어로 주로 쓰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sup>16)</sup> 11Q5의 본문은 어렵다. 그래서 더 오래된 창조 전통의 낱말 사용(참조, 욥 10:8)을 반영할 수도 있다(lectio difficilior). 한편, 시편 119:152에서 마소라 본문은 מְעַרְחִי(‘당신의 증거들에서부터’)를 쓰고, 칠십인역은 그에 맞게 ἐκ τῶν μαρτυρίων σου로 옮긴다. 그런데 11Q5는 이 가운데 자음의 순서가 바뀌어서(metathesis) מְעַרְחָה(‘당신[에 대한] 지식에서부터’)가 되어 있다.<sup>17)</sup> 시편 119편에서 마소라 본문에서 쓰인 낱말은 매 구절 번갈아 쓰이는 말쑤를 뜻하는 8가지 낱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11Q5는 분명히 필사 오류가 전승된 형태일 것이다. 시편 141:5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소라 본문의 וְתַלְתִּי(‘그리고 저의 기도’; 칠십인역 καὶ ἡ προσευχή μου)에 비해, 11Q5의 וְתַלְפָּחִי(?)는 명백한 필사 오류다.<sup>18)</sup>

### 2.1.2. 본문의 길이가 차이 나는 경우

먼저 11Q5의 본문이 길어진 경우가 있다.<sup>19)</sup> 물론 자음 ו나 י가 더 있어서 접속사가 추가되거나(보기, 시 135:4 וְיִשְׂרָאֵל 11Q5 ] יִשְׂרָאֵל MT LXX), 복수형(보기, 시 139:16 סְפָרִיכָה 11Q5 ] סְפָרָה MT LXX)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16) 참조, 삼상 31:9; 삼하 5:21; 사 10:11; 46:1; 렘 50:2; 호 4:17; 8:4; 13:2; 14:9; 미 1:7; 숙 13:2; 시 106:36, 38; 115:4; 135:15; 대상 10:9; 대하 24:18.

17) 이렇게 자음 순서가 다르면서 두 본문 전통이 다 유의미한 경우는 참조, 140:4 עֲנִיבִישׁ(‘거미’) 11Q5] עֲנִיבִישׁ MT, ἀσπίδων LXX(‘독사’).

18) 이 이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참조,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12. 이 필사본이 적극적인 교정을 한 현상을 고려한다면 의외이다. 아마도 수정자도 이 필사 오류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19) 11Q5에 정경 외의 시편이 더 있는 경우를 뺀 용례들은 다음과 같다. 시 102:24(6); 104:25(5<sup>2-3</sup>), 31(10), 32(11<sup>1</sup>); 105:7(13), 29(4), 37(10); 121:5(4); 122:4(10); 129:8(9<sup>1</sup>); 130:1(10), 2(11<sup>2</sup>); 132:11(3); 119:37(1<sup>2</sup>), 40(4), 45(8), 64(6), 88(7<sup>1</sup>), 110(6<sup>1</sup>), 137(10), 156(7), 159(11<sup>2</sup>), 171(1); 135:2(8, 9), 4(11<sup>2</sup>), 6(13-14); 136:7(10); 145:4(12), 21(17<sup>1-3</sup>); 154:1-3(21-22); 139:14(5), 16(8<sup>1</sup>); 137:1(17<sup>2</sup>); 143:3(9<sup>1</sup>); 134:2(2).

그렇더라도 본문 전통의 차이를 생각하게 하는 보기들이 많다. 이런 것들은 개별 문맥을 살펴서 본문비평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런 현상과 다른 보기를 들어보자. 시편 121:5 첫머리에 11Q5는 בַּלַּיְלָה(‘밤에’)가 있다. 그리하여 이 문장은 ‘밤에도 여호와와 그의 대를 지키시는 분입니다’가 된다. 하지만 이 표현은 마소라 본문에도, 칠십인역에도 없다. 아마도 이 이형은 다멘의 관찰처럼,<sup>20)</sup> ‘밤’과 ‘낮’의 교차 대구를 중심으로 ‘밤에 여호와와의 보호하심’(5전반절; 𐤁) / ‘낮에 여호와와의 보호하심’(5후반절; 𐤂) // ‘낮에 해의 상함이 없음’(6전반절; 𐤂) / ‘밤에 달의 해침이 없음’(6후반절; 𐤁)의 구조를 완성하는 구실을 했을 것이다. 본문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lectio brevior, lectio difficilior). 그렇지만 11Q5의 본문은 분명히 히브리 시 문학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비의도적 첨가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편 137:1의 경우는 다르다. 마소라 본문은 עַל נְהַרֹת בָּבֶל(‘바벨론의 강변에서’)로 연계 상태에 있는 두 명사 앞에 전치사가 쓰여 있으며, 이는 칠십인역에서 ἐπὶ τῶν ποταμῶν Βαβυλώνης로 그대로 옮겨졌다. 그런데 11Q5는 עַל נְהַרֹת בָּבֶל로 써서 ‘바벨론’ 앞에 전치사 ב가 더 있다. 사실 두 본문 전통 다 가능한 하다. 하지만 이 이형은 의도성에서 갈라졌다고 보기는 마소라 본문 전통의 중자탈락(haplography)이나 11Q5 전통의 중복오사(dittography)로 필사 오류에서 비롯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겠다. 어쨌거나 11Q5에서 본문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전통이 적어도 이 필사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11Q5의 본문이 짧은 경우<sup>21)</sup>도 자음 ו나 י가 차이로 접속사가 없거나(보기, 시 119:113 תּוֹרַתְכָּה 11Q5 ] תּוֹרַתְךָ MT LXX), 단수형(보기, 시 119:72 מֵאֵלֶיךָ 11Q5 ] מֵאֵלַי MT LXX)이 되는 용례들이 많다. 이 용례들에서도 개별적으로 의도성이나 비의도적 이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현상과 다른 보기를 들어보자. 시편 136:4에서 마소라 본문에서는 여호와가 גְּדֹלוֹת נִפְלְאוֹת(‘큰 이적들’)를 홀로 행하신 분으로 찬송한다. 그리고 이것은 칠십인역(θαυμάσια μεγάλα)과 일치한다. 하지만 11Q5에는 גְּדֹלוֹת가 없다. 다멘은 이 현상을 두고 유일신관(monotheistisch)을 강조하는 의도라고 주장한다(참조, 시 72:18; 86:10; 98:1).<sup>22)</sup> 곧 ‘큰 이적들’이라는 표현은 ‘작은 이

20) 참조,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132.

21) 참조, 시 109:27(6); 104:25(4); 105:9(15<sup>2</sup>); 122:2(8), 3(9<sup>2</sup>), 5(11<sup>1</sup>), 8(13); 125:2(4<sup>2</sup>); 130:8(15); 119:41(5), 105(1<sup>3</sup>), 109(5), 110(6<sup>2</sup>), 113(9), 117(13<sup>2</sup>), 142(15<sup>2</sup>), 160(12<sup>2</sup>), 174(4); 135:3(10<sup>2-3</sup>), 4(11<sup>1</sup>); 136:4(8), 8(11<sup>2</sup>), 15(16); 145:3(10); 139:18(10), 19(11); 141:7(3).

22)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191.

적들’을 행하는 존재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11Q5의 이형은 비의도적이라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시편 122:2도 흥미롭다. 마소라 본문에서는  $\text{לְרַגְלֵינוּ}$ (‘우리의 발’)가 성문에 들어섰다고 표현한다. 이는 칠십인역( $\text{oí pódēs hēmōn}$ )도 마찬가지다. 이 표현은 1전상반절부터 화자를 향한 1인칭 복수형의 발언이 이어진다고 본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1전상반절에서 화자가 1인칭 단수인 것과는 어긋난다. 이런 관점에서 11Q5는  $\text{לְרַגְלֵי}$ (‘내 발’)라고 써서 1전상반절의 진술을 이어 간다. 따라서 본문비평 관점에서 두 본문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적어도 11Q5의 본문이 비의도적으로 인칭 접미어를 누락시켰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필사본에 전해진 본문은 분명히 1인칭 단수 인칭 접미어가 있는 본문이었을 것이다.

## 2.2. (11Q5<sup>\*</sup>=LXX) ≠ MT

11Q5의 본문이 마소라 본문과는 다르지만, 칠십인역과 일치하는 형태가 있다. 이런 용례는<sup>23)</sup> 칠십인역 본문이 마소라 본문과 다를 때, 마소라 본문과만 일치하는 경우를 3번밖에<sup>24)</sup>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용례들은 분명히 11Q5의 필사자에게 칠십인역 본문 형태나 전통이 독자적으로 전해져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가운데 많은 경우 같은 낱말에 한두 개의 자음이 덧붙여 있거나 빠져 있어서, 또는 달라져서 생겨나는 이형들이다. 이를테면, 시편 102:27 후반 첫 문장의 마소라 본문은 ‘옷처럼( $\text{כְּלִבְנוֹת}$ ) 그분이 그것들(하늘과 땅; 26절)을 바꾸실 것입니다’이다. 그런데 11Q5와 칠십인역에는 이 낱말 앞에 접속사가 있다( $\text{וְכִלְבֹּנוֹת}$ ;  $\text{καὶ ὡσει περιβόλαιον}$ ; ‘그리고 옷처럼’). 구문 관점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 이 접속사는 아마도 히브리어 본문에서 바로 앞 낱말이 자음 1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text{בְּלוֹן}$ ), ‘그것들이 낡을 것입니다’, 중복오사(dittography)로 덧붙였거나 마소라 본문이 중자탈락(haplography)으로 빠졌

23) 참조, 시 102:26(8<sup>2</sup>), 27(9); 109:26(5-6), 31(9); 104:1(6<sup>2</sup>), 4(10<sup>1</sup>), 22(2<sup>1</sup>), 29(8<sup>3</sup>), 30(9); 147:20(7<sup>2</sup>); 121:3(3); 122:7(12); 125:4(7); 126:1(10), 6(14, 15<sup>1-2</sup>); 129:3(5); 119:16(2<sup>2</sup>), 17(3<sup>3</sup>), 68(10), 71(13), 88(7<sup>2</sup>), 105(1<sup>2</sup>), 119(15<sup>1</sup>), 163(14<sup>2</sup>); 135:18(1); 145:5(13<sup>1-2</sup>), 16(7-8); 139:19(11); 138:1(2<sup>1</sup>), 7(8<sup>2</sup>); 93:1(16, 17<sup>1</sup>); 144:5(16); 142:5(1); 143:5(11<sup>2</sup>).

24) 흥미롭게도 이런 경우는 11Q5, frg. E ii에 든 시 104:24, 35; 147:1에서 “11Q5 MT ]LXX”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참조, E. Ulrich, *The Biblical Qumran Scrolls*, 697; 비교, F. García Martínez, *DJD XXIII*, 33-34.

을 수 있다. 이와 상반되는 용례도 있다. 가령, 시편 139:19 후반에서 마소라 본문은 접속사와 함께 시작하여 ‘그리고 피의 사람들아(וְאִנְשֵׁי דָמַיִם) 나를 떠나거라!’이다. 전반절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는 문장이어서 접속사가 없어도 무방해 보인다. 이런 관점이 11Q5와 칠십인역의 본문에 반영되었을 것이다(אִנְשֵׁי דָמַיִם; ἄνδρες αἱμάτων). 이런 용례들을 통해서 쿠파 시대 자음 차원에서 일어났던 본문 분화 현상을 추측할 수 있다.<sup>25)</sup>

하지만, 전혀 다른 낱말을 전제하는 때도 있다. 보기를 들자면, 시편 129:3 전반에서 마소라 본문은 עַל-גְּבֵי הַרְשָׁוִי הֲרָשָׁו חַרְשָׁיִם(‘밭 가는 이들이 내 등 위에서 밭 갈았습니다’)으로 쓴다. 그런데 11Q5는 여기서 עַל גְּבֵי חַרְשָׁו רַשָׁעִים(‘악인들이 내 등 위에서 밭 갈았습니다’)으로 필사하였다. 두 본문의 차이는 단순한 필사 오류나 비의도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11Q5의 본문 전통은 흥미롭게도 칠십인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ἐπὶ τοῦ νότου ἐκέκταινον οἱ ἁμαρτωλοί). 따라서 이 유형은 분명히 마소라 본문과는 독자적으로 전승된 칠십인역 전통과 공유하는 본문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가 하면 길이의 차이를 보이는 용례들도 있다. 표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흥미로운데, 시편 104:1에서 마소라 본문에는 표제가 없다. 그런데 11Q5에는 דָּוִד(‘다윗의’)가 표제로 뚜렷이 남아 이 전통은 칠십인역(τῷ Δαυιδ)이 뒷받침하며, 쿠파 제4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필사본 단편(4Q87)에서도 본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단편을 바탕으로 공란을 재구성하면 이 표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시편 104편의 표제 전통은 적어도 쿠파 시편 필사본이 만들어지던 때에는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또한 보기를 더 들자면, 119:68에서 11Q5는 טוֹב אַחַהּ אֲדֹנָי(‘선하십니다, 당신은, 주님!’)로 쓴다. 하지만 셋째 낱말 ‘주님’은 마소라 본문에는 없다. 하지만 칠십인역(χρηστός εἰ σύ κύριε)은 11Q5의 본문을 지지한다.

11Q5가 마소라 본문과 달리 칠십인역과 일치하는 용례들에서 우리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다양한 본문 형태들이 공존하며 혼재했던 유동성과 다층성을 엿볼 수 있다.

### 2.3. 11Q5\* ≙ MT ≙ LXX

세 본문 전통이 다 제각각인 경우는 많지 않은 용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25)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경우는 쿠파 폐사립의 본문 인용(lemmat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H. Kim,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et Habakuk - Rezeptionsä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을 참조하라.

데,<sup>26)</sup> 이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형태의 본문이 공존했던 시대를 반영할 것이다.

이 이형들 가운데서는 한 본문에서 분화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용례가 있다. 예를 들어, 시편 147:20에서 마소라 본문은 בְּלִי יְדֵעוּם(‘그리고 법도들,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이다. 이 문장은 칼(qal)형 동사로 읽고 있어서 목적어가 중복된 형태다. 반면에 11Q5는 동사를 히필(hiphil)형으로 읽어서 동사에 붙은 접미어를 간접 목적어로 처리했으며, 첫머리에 접속사도 없다(מִשְׁפָּטִים בְּלִי הוֹדִיעוּם; ‘법도들을 그분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칠십인역은 두 전통이 융합된 듯하여 앞부분은 접속사가 있는 마소라 본문의 전통을, 뒷부분은 11Q5의 사역형 동사로 읽었다(καὶ τὰ κρίματα οὐκ ἐδήλωσεν αὐτοῖς; ‘그리고 그 법도들을 그분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본문 전통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낱말들의 변화형에서 분화하였다.

반면에 셋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낱말을 따르는 용례도 있다. 시편 119:159에서 마소라 본문은 כִּי־תִחַזְק(‘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로 쓴다. 이와 비슷하지만 칠십인역은 ἐν τῷ ἐλέει σου(‘당신의 인자하심으로써’)로 옮기는데, 이는 כִּי־תִחַזְק를 번역 대본으로 전제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칠십인역과 마소라 본문은 비슷한 정방형 자음의 혼동에서 비롯한 이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1Q5는 여기에서 כִּי־תִחַזְק를 쓴다. 전치사는 마소라 본문과 같지만, 낱말 자체가 달라졌다. 두 전통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는지 적어도 본문 분화 형태는 다른 낱말로도 이어졌음은 분명하다.

이런 형태의 본문 이형 전통은 이 필사본의 시대에 본문 형태가 다양하게 분화하여 공존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2.4. (11Q5<sup>\*</sup>=MT<sup>ms[sl]</sup>) ≠ MT<sup>L</sup>

11Q5에서 흥미로운 점은 본문이 마소라 전통의 중세 필사본에 남아 있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sup>27)</sup> 보기를 들자면, 시편 121:1에서 레닌그라드

26) 시 102:20(3), 29(11); 147:20(7<sup>1, 2</sup>); 125:5(7); 119:44(8), 119(15<sup>3</sup>), 159(15<sup>1</sup>); 145:5(14); 139:12(4), 21(13).

27) 시 102:26(8); 105:6(13<sup>2</sup>); 123:1(15<sup>2, 3</sup>), 5(8<sup>2</sup>); 129:2(4), 8(9<sup>2</sup>); 130:2(11<sup>2, 3</sup>); 132:12(4); 119:2(12), 16(2<sup>2</sup>), 17(3<sup>1, 2, 3</sup>), 18(4), 70(12), 71(13), 85(4), 92(11), 105(1<sup>1</sup>), 108(4<sup>1</sup>), 114(10), 128(1), 131(4<sup>1</sup>), 133(6), 136(9), 160(12<sup>1</sup>), 163(14<sup>2</sup>); 135:1(7<sup>2</sup>), 6(14), 17(1), 18(1); 136:8(11<sup>1</sup>); 145:13(2-3), 21(16); 139:16(8<sup>2</sup>, 9), 23(15<sup>2</sup>); 138:1(2<sup>1</sup>); 133:3(10<sup>1</sup>, 10-11); 144:1(12<sup>2, 3</sup>), 2(14); 143:4(10<sup>2</sup>), 5(11<sup>2</sup>), 6(12<sup>1</sup>); 149:9(3); 140:2(13<sup>3</sup>), 3(14). 물론, 이 경우와는 반대로, 11Q5의 필사본문이 레닌그라드 사본의 본문과 일치하는 반면에,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에서 또 다른 본문의 형태

사본에 전해진 마소라 본문의 표제는 לְמַעַן לְשִׁיר (‘순례를 위한 노래’)로 연계 형으로 쓰인 다른 순례 시편들의 표제 הַמַּעַלּוֹת; שִׁיר (‘순례의 노래’)와 다르다. 그런데 11Q5는 어느 순례 시편들처럼 표제를 הַמַּעַלּוֹת로 쓴다. 이 전통은 칠십인역(Ὁδὴ τῶν ἀναβαθμῶν)에서 뒷받침되는데, 그런 전통이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전통은 어느 순간에 분화하여 공존하다 제각각 전승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문 역사가 좀 더 복잡하기로는, 시편 119:17전반을 보기로 들 수 있다. 레닌그라드 사본에 전해진 마소라 본문은 גַּמַּל עַל-עַבְדְּךָ (‘당신 종을 후대해 주십시오’)로 쓴다. 여기서 쓰인 동사의 기본형은 ‘완성하다’인데, 11Q5는 기본 뜻은 같지만, 셋째 자음이 다른 גַּמְוֹר로 필사하였다. 칠십인역은 ‘대갓음하다’라는 뜻이 있는 ἀνταπόδος를 쓰는데, 이 번역으로는 어느 전통을 전제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11Q5의 전통은 쿰란 본문 전통에서 4Q90은 물론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마소라 본문과 구분되는 본문 전통을 보여 준다. 이 유형의 분화는 비슷한 발음 때문에 구두 전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본문의 길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시편 138:1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에는 אֲוֹדָה בְּכָל-לִבִּי (‘제 온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로 필사되었다. 그렇지만 11Q5에서는 동사 다음에 신명사문자를 써서 אֲוֹדָה יְהוָה בְּכֹל לִבִּי의 본문을 전한다. 이 전통은 칠십인역(ἐξομολογήσομαι σοι κύριε ἐν ὅλη καρδίᾳ μου)은 물론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분명히 고대의 또 다른 본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11Q5의 본문 전통이 중세 필사본에 남아 있는 본문 전통의 고대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레닌그라드 사본에 남아 있는 마소라 본문 전통과는 다른 본문 형태를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 3. 11Q5 수정 본문(11Q5<sup>corr</sup>) 유형의 특징

11Q5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존하는 필사본 38번의 용례<sup>28)</sup>에서 필사본의 원래 필사자가 쓴 본문(11Q5<sup>\*</sup>)에 대한 수정

를 찾아볼 수 있는 용례들도 많지는 않으나 찾아볼 수 있다. 참조, 시 101:4(4); 104:24(4<sup>1,2</sup>); 126:4(13); 119:161(13<sup>2</sup>); 145:21(17<sup>2</sup>); 138:7(8<sup>2</sup>); 140:2(13<sup>1</sup>). 비록 이 형태의 유형은 본문비평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본문의 다층성의 증거로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다.

28) 참조, E. Ulrich, *The Biblical Qumran Scrolls*, 694-726. 이 가운데 정경 본문이 아닌 시편에 든 2번의 보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Ap Zion 12 {אָנִישׁ 11Q5<sup>\*</sup> = 4Q88} ≠ אִישׁ 11Q5<sup>corr</sup>; Ap Zion 12 {יִשְׁתַּלֵּם 11Q5<sup>\*</sup> ≠ {יִשְׁתַּלֵּם 11Q5<sup>corr</sup> = 4Q88}).

(11Q5<sup>corr</sup>)이 있다는 점이다. 11Q5<sup>corr</sup>의 본문 수정은 글자 위에 점을 찍어 표시하거나, 낱말 위 행간에 본문을 삽입하거나 본문을 지우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sup>29)</sup> 이 수정 본문은 보통 필사자 자신이 한 것으로 본다.<sup>30)</sup> 이는 글씨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토브(E. Tov)가 말하듯, 쿵란 필사본의 수정 본문들이 몇 글자에 제한되므로, 결정적이지는 않다.<sup>31)</sup> 더구나 본문을 지우기도 하고, 수정 본문에 점을 찍기도 하며, 행간에 쓰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은 수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하게 한다. 어쨌거나 본문을 수정하는 것은 본문 필사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를 고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본문의 증거를 통한 판단의 가능성을 고려할 용례들도 있다. 이런 것은 다른 본문 증거들과 비교하면 판명될 것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쿵란 본문이 전승되던 당시 본문의 유동성과 비교정성의 단서로 여길 수 있기에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 3.1. MT의 전통과 일치하는 수정

#### 3.1.1. 11Q5\* ≙ (11Q5<sup>corr</sup>=MT=LXX)

11Q5의 수정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는 독자적인 형태의 원래 필사본문을 MT 본문 전통과 일치하는 형태로 바꾼 경우다. 이 가운데 수정 본문이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과 일치한 경우가 가장 많다.

##### ① 11Q5\*의 필사 오류 수정

먼저 비슷한 정방향 자음 문자의 혼동을 수정한 보기가 있다. 가령, 시편 119:59에서 11Q5\*의 본문은  $\text{ואשיחה רגלי אל עדוותיכה}$ (‘그리고 제 발을 당신의 증거들을 향해 두겠습니다’)로 쓰는데, 11Q5<sup>corr</sup>는 동사를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text{καὶ ἐπέστρεψα}$ )과 일치하게  $\text{ואשיבה}$ (‘제가 돌이켰습니다’)로 고쳤다.<sup>32)</sup> 자음  $\text{ב}$ 와  $\text{ת}$ 사이의 혼동에서 온 본문 차이를 고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시편 140:2에서 11Q5\*는  $\text{חמייח(?)}$ 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낱말로 필사

29) 이에 대해서는 J. A. Sanders, *DJD IV*, 13-14;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9-30을 보라.

30) 참조, J. A. Sanders, *Dead Sea Psalms Scroll*, 20-21;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8.

31) E. Tov, *Scribal Practices and Approaches Reflected in the Texts Found in the Judean Desert* (Leiden: Brill, 2004[e-book, 2018]), 223, accessed 30 January 2021 from <https://brill.com/view/title/11475>.

32) 필사본에는 자음  $\text{ב}$ 만 남아 있지만, 샌더스는 그 아래  $\text{ת}$ 를 지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J. A. Sanders, *DJD IV*, 30.

하였다. 이것을 11Q5<sup>corr</sup>는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ἀδίκου)과 같게 잘못 쓴 첫째, 위에 ט을 덧붙여서 חמסים(‘폭력들’)으로 고쳤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자음이 빠져 있는 것을 마소라 본문 전통과 일치하도록 채워 넣은 용례들도 있다. 시편 104:32에서 11Q5\* 본문은 ויעשו(‘그것들이 행하였다’)이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은 신현현(theophany)의 한 현상으로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그린다. 그래서 11Q5<sup>corr</sup>은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καὶ καπίζονται) 전통과 일치하게 ויעשו(‘그것들이 연기를 뿜었다’)이다.<sup>33)</sup>

이런 경우 말고 자음이나 낱말이 빠진 것 가운데 더 많은 경우는 단순한 필사자의 실수에서 비롯하였다.<sup>34)</sup> 보기를 들자면, 시편 119:42의 경우 11Q5\* 본문은 וענה(‘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입니다’)로 3인칭 남성 단수 주어를 취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앞선 구절인 41절의 ‘그리고 여호와여,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오기를 바랍니다!’(개인 번역)에 대한 결과문으로 1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 이에 따라 11Q5<sup>corr</sup>는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καὶ ἀποκριθήσομαι)과 같게 행간에 자음 נ을 써넣어 ונענה(‘그러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로 고쳤다(참조, 4Q89). 그러나 11Q5\*의 본문은 단순 필사 오류로 여길 수 있겠다.

반면에, 11Q5의 필사자가 잘못해서 두 번 쓴 본문을 지운 경우도 2번 있는데 다음과 같다.

122:6 ושאלו 11Q5\* ≠ {שאלו 11Q5<sup>corr</sup> = MT = ἐρωτήσατε LXX}  
 132:10 חשב חשב 11Q5\*(?)<sup>35)</sup> ≠ {חשב 11Q5<sup>corr</sup> = MT = ἀποστρέψης LXX}

이 두 용례 모두 문맥으로 보나 문법으로 보나 같은 본문을 두 번 쓸 까닭

33) 이런 용례로는, הבנוה 11Q5\* ≠ {הבנויה 11Q5<sup>corr</sup> = MT = οἰκοδομουμένη LXX}(122:3); אנוח 11Q5\* ≠ {אנוחו 11Q5<sup>corr</sup> = MT = ἡμεῖς LXX}(124:7); אוכלמה 11Q5\* ≠ {אוה 11Q5<sup>corr</sup> = אה LXX} MT = τῆν τροφήν αὐτῶν LXX}(145:15); בול 11Q5\* ≠ {בכול 11Q5<sup>corr</sup> = בקל MT = ἐν πάσι LXX}(143:5) 등이 있다.

34) 이런 용례로는, נם 11Q5\* ≠ {נעם 11Q5<sup>corr</sup> = MT = παρὰ LXX}(121:2); נאחתי 11Q5\* ≠ {נאחתי 11Q5<sup>corr</sup> = MT = ἦρα LXX}(123:1); עבכה 11Q5\* ≠ {עברכה 11Q5<sup>corr</sup> = MT(5Q5) = καὶ ὁ δοῦλος σου LXX}(119:155); נתן 11Q5\* ≠ {נתן 11Q5<sup>corr</sup> = MT = καὶ εἰδως LXX} (145:15); ישבו 11Q5\* ≠ {ישבנו 11Q5<sup>corr</sup> = MT = ἐκ ἐκαθίσασμεν LXX}(137:1); נעמו 11Q5\* ≠ {נעמו 11Q5<sup>corr</sup> = MT = ἠδύθησαν LXX}(141:6) 등이 있다.

35) 필사본에는 “חשב” 다음에 아무런 까닭 없이 빈 자리가 있는데, 잘못해서 한 번 더 쓴 본문을 지운 자리로 여긴다. 참조, J. A. Sanders, *DJD IV*, 27과 부록의 필사본 사진.

이 전혀 없다. 따라서 11Q5\*의 필사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자음의 순서를 뒤바꿔 쓴 것(metathesis)을 고친 보기도 있는데, 시편 143:6에서 11Q5\*는 יעִפָּה(?)를 쓴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이 자음 본문은 뜻이 통하지 않으며, 11Q5<sup>corr</sup>가 11Q5\* 본문의 첫 자음 י를 지우고 행간에 자음을 추가한 עִיפָּה가 마소라 본문에서나 칠십인역(ἀνυδρός)에서나 앞선 ‘땅처럼’과 연계 상태를 이루어 ‘마른’의 뜻으로 어울린다.

또 다른 수정의 형태로는 앞선 구절의 끝나는 부분과 혼동하여 앞선 부분의 구절을 문맥에 맞지 않게 한 번 더 쓴 경우(homoioteleuton)가 있는데, 시편 118:26 후반에서 11Q5\*는 בְּרַכְנוּכֶם בְּשֵׁם(‘우리가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하였습니다’)인데, 여기서 쓰인 בְּשֵׁם(‘이름으로’)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전반절에서 ‘여호와’와 함께 쓰였으며, 후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서’(בְּבַיִת יְהוָה)가 또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1Q5\*의 필사자는 전반절의 구절을 무의식적으로 썼으며, 이것을 11Q5<sup>corr</sup>가 지운 것이다. 반대로 이어지는 낱말의 첫 부분을 잘못 쓴 용례도 있다(homoiarcton). 시편 105:44에서 11Q5\*는 동사 יָתַן(‘주다’)의 부정사 연계형이 전치사와 결합된 형태의 לָתַת를 쓴다. 하지만 이 형태는 구절의 첫 표현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더구나 앞선 구절과 이어지는 구문도 아니다. 아마도 11Q5\*의 필사자는 이 낱말 뒤에 이어지는 לָהֶם(‘그들에게’)의 첫 자음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 잘못 필사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용례들은 모두 11Q5<sup>corr</sup>가 11Q5\*의 필사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그 수정의 전통은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과 일치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경우에 마소라 본문의 자음 본문 전통은 이 필사본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② 11Q5\*의 필사 오류가 아닌 경우

한편, 필사 오류가 아닌데도 11Q5<sup>corr</sup>가 11Q5\*의 본문을 마소라 본문/칠십인역의 전통과 같도록 고친 용례도 있다. 시편 145:1에서 11Q5\*는 표제에 이어 시편 첫머리에 신명사문자(tetragrammaton)를 쓰는데, 이 필사본의 전반적인 특징에 따라 고대 히브리어로 구분하였다.<sup>36)</sup> 그러나 필사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첫머리에 “여호와여”로 시작하는 본문의 전통은 마소라 본문에서나 칠십인역 등 역본 전통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전통에 걸맞게 11Q5<sup>corr</sup>는 이 신명사문자 아래와 위에 제각각 점을 찍어 삭제할

36) 이에 대해 참조, J. A. Sanders, *DJD IV*, 6.

것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용례는 11Q5\*의 신명사문자를 임의로 삽입했을 가능성과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본문 전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 3.1.2. 11Q5\* ≙ (11Q5<sup>corr</sup>=MT)

이 경우는 11Q5<sup>corr</sup>가 마소라 본문과 함께 11Q5\*를 수정했지만, 번역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차이여서 칠십인역의 전통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용례들이다.

물론 여기서도 11Q5\*의 필사 오류를 수정한 보기가 있다. 시편 145:3의 11Q5\* 본문은  $\text{לְהַלְלֵהוּ}$ 이다. 11Q5<sup>corr</sup>는 여호와와 위대하심을 기리는 이 구절의 문맥에서 마소라 본문에서처럼 푸알(Pual) 분사형인 본문에서 빠진 자음  $\text{ל}$ 을 행간에 집어넣어  $\text{לְהַלְלוּהוּ}$ 로 바로잡았다.

시편 119:154에서 11Q5\*는 ‘법정 변론을 하다’라는 뜻의 동사  $\text{בַּיָּד}$ 의 2인칭 남성 명령형 동사  $\text{בַּיָּד}$ 를 쓴다. 이 형태는 히브리어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11Q5<sup>corr</sup>는 마소라 본문에서 쓰이며,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더러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text{בַּיָּד}$ 의 어미가 첨가된 형태<sup>37)</sup>로 행간 첨가를 통해서 고친다. 11Q5\*가 틀린 본문이 아니므로, 이 경우 11Q5<sup>corr</sup>의 수정은 분명히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는 본문의 전통을 반영할 것이다.

시편 142:8의 11Q5\*는 ‘에워싸다’는 동사( $\text{כָּתַר}$ )의 히필(Hiphil)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필사본에서 이 형태  $\text{כָּתַרְוּ}$ 에서 히필 형의 전형적인 자음  $\text{ו}$ 가 있는 자리가 비어 있어서 11Q5<sup>corr</sup>가 지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1Q5 Col. XXV, 5).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동사의 히필 형은 여기 말고 하박국 1:4와 잠언 14:18에서 더 쓰인다. 하지만 11Q5<sup>corr</sup>는 이 히필 형이 아니라, 마소라 본문의 전통처럼 같은 뜻으로 쓰이는 피엘(Piel)형을 염두에 두고 자음  $\text{ו}$ 를 지운 듯하다. 사실 피엘형도 히필형과 같은 뜻으로 쓰이므로(참조, 샛 20:43; 시 22:13; 욥 36:2), 이 수정도 본문 전통을 반영하겠다.

시편 143:3에서도 11Q5\*는 ‘짓이기다’라 뜻이 있는 피엘 동사형으로 흔히 쓰이지 않는  $\text{כָּתַר}$ 을 쓴 것으로 보인다(참조, 시 44:20; 51:10). 반면에 11Q5<sup>corr</sup>는 마소라 본문에서 쓰이는 것과 같이 좀 더 많이 쓰이는  $\text{כָּתַר}$ (참조, 사 53:10; 시 72:4; 89:11; 시 95:5 등)로 원래 자음을 지우고 행간에 자음을 고쳤다.

이 용례들은 11Q5<sup>corr</sup>가 11Q5\*와는 구분되는 마소라 본문으로 이어진 본

37) 이 형태에 대해서는, 참조,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48 d.

문의 전통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본문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해 준다.

### 3.1.3. (11Q5<sup>\*</sup>=MT<sup>L</sup>) ≙ (11Q5<sup>corr</sup>=MT<sup>mss</sup>)

이 경우는 11Q5<sup>\*</sup>가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이어진 본문 전통을 반영하는 반면에, 11Q5<sup>corr</sup>는 레닌그라드 사본의 본문과 구분되는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으로 이어진 본문의 전통과 일치하는 경우다. 시편 119:106에서 11Q5<sup>\*</sup>는 레닌그라드 사본의 히브리어 본문과 같게 ‘당신의 의로운 규례들’(חֻקֵי צְדָקָה)로 필사하였지만, 필사본은 복수 연계형 어미인 자음 ׀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어서 11Q5<sup>corr</sup>가 지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칠십인역(τὰ κρίματα)은 복수형의 본문을 지지한다. 이렇게 볼 때, 11Q5<sup>corr</sup>의 수정은 이해하기 어려워지지만,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들(MT<sup>mss</sup>)에서 이 본문의 전통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해 준다.

### 3.1.4. (11Q5<sup>\*</sup>=MT<sup>mss</sup>) ≙ (11Q5<sup>corr</sup>=MT<sup>L</sup>)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 용례에서는 11Q5<sup>\*</sup>가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과 일치하고, 11Q5<sup>corr</sup>가 레닌그라드 사본의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한다.

시편 119:27에서 11Q5<sup>\*</sup>는 פְּקוּדֵיךָ יְיָ(‘당신 법도의 길’)로 쓰는데, 이는 중세 필사본 하나(MT<sup>mss</sup>)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이다. 하지만 11Q5<sup>corr</sup>는 행간에 자음 ׀를 보충하여 레닌그라드 사본의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본문(ὁδὸν δικαιοματιῶν σου)과 일치하는 פְּקוּדֵיכָּ יְיָ로 수정하였다. 11Q5<sup>\*</sup>의 본문이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독자적 본문 전송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다.

시편 138:1에서 11Q5<sup>\*</sup>는 후반절 첫머리에 신명사문자를 고대 히브리어로 써넣었다. 그러나 이것을 11Q5<sup>corr</sup>는 신명사문자 아래위에 점을 찍어서 지울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레닌그라드 사본과 칠십인역 본문의 전통과 일치한다. 하지만 11Q5<sup>\*</sup>의 본문 전통도 중세 필사본(MT<sup>mss</sup>)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단순한 필사 오류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

### 3.1.5. (11Q5<sup>\*</sup>=LXX) ≙ (11Q5<sup>corr</sup>=MT)

시편 126:6의 11Q5<sup>\*</sup>는 יִלְכוּ וּבְנוּ הַלֵּלְךָ(‘그들이 반드시 가서 올 것입니다’)이다. 이 본문은 칠십인역(πορευόμενοι ἔπορεύοντο καὶ ἔκλαον)이 지지한다. 그런데 11Q5<sup>corr</sup>는 첫째 동사형을 지우고 יָלַךְ로 다시 쓴 것으로 판단한다.<sup>38)</sup>

38) 참조, J. A. Sanders, *DJD IV*, 25.

결국, 이 본문은 두 동사의 인칭이 달라지게 되었다. 11Q5<sup>corr</sup>가 앞선 동사만 수정한 것이 부주의한 수정자의 임의 수정으로 보이지만, 이 전통이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들(MT<sup>mss</sup>)에서도 발견되는 점은 흥미롭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둘째 동사를 부정사 절대형으로 읽는데, 보통 이를 역접문 강조의 용법으로 새긴다.<sup>39)</sup> 어쨌거나 이 용례에서 위에서 설명한 순서로 성장했을 본문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다.

### 3.2. MT의 전통과 다른 수정

11Q5<sup>corr</sup>의 수정 본문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마소라 본문과 달라진 보기들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형들은 11Q5<sup>corr</sup>가 마소라 본문과 구분되는 또 다른 본문 전통을 따랐는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본문을 제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3.2.1. 11Q5\* ≙ (11Q5<sup>corr</sup>=LXX) ≙ MT

시편 105:6에서 11Q5\*는 עבְדוּךָ עַבְדֶּיךָ로 첫째 낱말을 잘못 필사하였고, 이를 11Q5<sup>corr</sup>가 지워서 수정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정 본문이 마소라 본문과 다르다는 점이다. 마소라 본문의 전통은 위의 본문처럼 복수형 명사를 쓴 ‘그분의 종들’이 아니라 ‘그분의 종’(עַבְדֶּיךָ)으로 단수형을 쓴다. 11Q5의 전통과 같이 복수형 명사를 쓰는 본문 형태는 칠십인역(δούλοι αὐτοῦ)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11Q5의 본문 형태는 마소라 본문보다는 칠십인역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3.2.2. (11Q5\*=LXX=MT) ≙ 11Q5<sup>corr</sup>

시편 119:111 후반에서 마소라 본문은 전반절의 ‘당신의 증거들은 영원히 저의 기쁨입니다’라는 표현에 이어, 그 근거문으로 כִּי שְׂשׂוֹן לִבִּי הִמָּה(‘왜냐하면 그것들은 제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쓴다. 문장 첫머리의 불변화사 כִּי는 칠십인역에서도 ὅτι로 옮겨졌다. 11Q5\*는 이 전통을 따랐지만, 11Q5<sup>corr</sup>가 이 낱말을 지우고 그 자리에 윗점을 찍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sup>40)</sup> 11Q5<sup>corr</sup>의 수정 본문은 후반절을 원인문이 아니라 추가 진술로 만든다. 이는 아마도 이어지는 112절과 동의적 평행법을 이루려는 의도로 추정할 수

39) 참조, H. J. Kraus, *Psalmen 60-150*, 7. Aufl., BKAT XV2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2003), 1032; GK §113 p, r.

40) 참조, J. A. Sanders, *DJD IV*, 32.

있다.<sup>41)</sup> 현존하는 본문 증거에서는 이런 이형을 찾아볼 수 없지만, 11Q5<sup>corr</sup>의 임의 수정인지, 또 다른 본문 형태를 반영하는지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 3.2.3. 11Q5\* ≙ 11Q5<sup>corr</sup> ≙ (MT=LXX)

시편 136:7에 이어 11Q5\*는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절이 더 있다. 두 전통에서 7절은 하늘의 큰 빛을 창조하신 분을 향한 찬양이며, 8절은 구체적으로 해, 9절은 달과 별 창조가 이어진다. 그런데 11Q5\*는 그 사이에 **וַיִּרְאֵהוּ כִּי לְעוֹלָם חָסְרוּ אֶת הַשֶּׁמֶשׁ וְיָרַח** ('해와 달을, 이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가 더 있다. 여기에서 필사본에 **וְיָרַח** ('그리고 달') 앞에는 11Q5<sup>corr</sup>가 **וְאֵת**를 지운 흔적이 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적어도 11Q5가 필사되던 시대에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편 145:2의 끝에도 11Q5\*는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절 **וְיָרַח וְיָרַח בְּרוּךְ יְהוָה שְׁמוֹ** ('송축받으소서, 여호와, 그분의 이름')가 더 있다. 여기서 11Q5<sup>corr</sup>는 평행을 맞추어 **וְיָרַח וְיָרַח בְּרוּךְ יְהוָה שְׁמוֹ** ('송축받으소서, 여호와, 그리고 송축받으소서, 그분의 이름')로 행간에 낱말을 추가하였다. 이 구절은 1-2절의 찬송 다짐과 3절의 찬양 내용과도 어울린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단순한 임의 삽입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 4. 맺음말

우리가 분석한 대로 11Q5\*의 본문과 그것을 수정한 11Q5<sup>corr</sup>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진 여러 본문 전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 준다. 그러므로 이 필사본의 본문 형태는 간단히 한 마디로 평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형을 내보이는 개별 용례들을 세심히 분석하고 분류하여야 그 본문비평과 본문역사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제대로 매길 수 있다.

11Q5\*의 시편 필사 본문의 이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과는 독자적인 본문 형태가 가장 많다는 점인데, 이는 이 필사본의 시대에 구약성경 본문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다층적이었던 점을 입증해 준다. 이 점은 세 전통 모두가 다른 용례들에서도 입증된다.

한편, 11Q5의 본문이 마소라 본문과 달리 칠십인역과 일치하는 용례들이나 레닌그라드 사본의 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들에 전송된 본문과 일치하는 용례들은 11Q5에서 발견되는 이형들이 단순한 필사

41)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171.

자의 임의 수정이 아니라 이 당시 존재하던 본문 형태를 반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1Q5\*의 필사 본문을 11Q5<sup>corr</sup>가 11Q5\*를 수정할 때, 기준이 된 본문의 형태는 마소라 본문의 그것과 비슷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더러는 오늘날 레닌그라드 사본에 전승된 마소라 본문의 형태와는 조금씩 차이나는 고대 본문의 흔적도 드러내 주어서, 이 시대에는 자음 본문이 여전히 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한 11Q5의 시편 필사 본문 형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먼저, 이 필사본이 필사되던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의 자음 본문은 아직 고정되지 않은 채,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본문비평과 본문역사에서 이 필사본은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으므로 본문역사 재구성에 세심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주제어>(Keywords)

쿰란 성경 본문, 11Q5, 시편, 본문비평, 본문역사.

Qumran biblical texts, 11Q5, Psalms, textual criticism, textual history.

(투고 일자: 2021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4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우, “시편 본문비평에 있어서 70인역과 쿵란 사본의 위치와 가치”, 『성경원문연구』 3 (1998), 291-317.
- 김정우, “쿵란의 성서 시편들과 11QPsa의 배열 문제 및 그 정경적 함의”, 『Canon & Culture』 2:1 (2008), 89-120.
-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유윤중, “사해사본 11QPsa와 시편의 정경화”, 『신학논단』 43 (2006), 235-248.
- 이환진, “쿵란 공동체가 남긴 『시편 두루마리』(11QPsa) 속의 일곱 시편”, 『신학과 세계』 53 (2005), 7-35.
- 이윤경, “쿵란 시편사본과 페세르 시편을 통해 본 쿵란공동체의 신학”, 『Canon & Culture』 10:1 (2016), 147-171.
- 주옹-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Carbajosa, I., “11QPsa and the Hebrew Vorlage of the Peshitta Psalter”, *Aramaic Studies* 2:1 (2004), 3-24.
- Dahmen, U.,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Rekonstruktion, Textbestand, Struktur und Pragmatik der Psalmenrolle 11QPsa aus Qumran*, Leiden; Boston: Brill, 2003.
- Dimant, D., “David’s Youth in the Qumran Context (11QPsa 28:3-12)”, J. Penner, et al., eds., *Prayer and Poetry in the Dead Sea Scrolls and Related Literature*, Leiden: Brill, 2012, 97-114.
- Flint, P., “The Book of Psalms in the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VT* 48 (1988), 453-472.
- Flint, P.,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Leiden, et al.: Brill, 1997.
- García M., F., Tigchelaar, E. J. C., and van der Woude, A. S., eds., *Qumran Cave 11. II: 11Q2-18, 11Q20-30*, DJD XXIII, Oxford: Clarendon, 1998.
- Goshen-Gottstein, M. H., “The Psalms Scroll (11QPsa): A Problem of Canon and Text”, *Textus* 5 (1966), 22-33.
- Kim, J.-H.,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er Habakuk - rezeptionsae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
- Kraus, H. J., *Psalmen 60-150*, 7. Aufl., BKAT XV2,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2003.
- Lehmann, M. R., “11QPsa and Ben Sira”, *RQ* 11 (1983), 239-251.
- Sanders, J. A., ed., *The Dead Sea Psalms Scroll*,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Sanders, J. A., ed., *The Psalms of Qumrân Cave 11 (11QPs<sup>a</sup>)*, DJD IV, Oxford: Clarendon, 1965.
- Sanders, J. A., “Two Non-Canonical Psalms in 11QPs<sup>ab</sup>”, *ZAW* 76 (1964), 57-75.
- Skehan, P. W., “A Liturgical Complex in 11QPs<sup>ab</sup>”, *CBQ* 35 (1973), 195-205.
- Talmon, S., “Pisqah Be’emsa’ Psuq and 11QPs<sup>ab</sup>”, *Textus* 5 (1966), 11-21.
- Tov, E., *Scribal Practices and Approaches Reflected in the Texts Found in the Judean Desert*, Leiden: Brill, 2004(e-book, 2018), accessed 30 January 2021 from <https://brill.com/view/title/11475>.
- Tov, E., ed., *The Text from the Judaean Desert: Indices and an Introduction to the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Series*, DJD XXXIX, Oxford: Clarendon Press, 2002.
- Ulrich, E.,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Vol. 3*, Leiden: Brill, 2013.

<Abstract>

## **Eine Analyse der Textformen von 11Q5**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Beim vorliegenden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Textformen von 11Q5. Die betreffende Handschrift aus der Qumran Höhle 11 enthielt 48 Psalmen, nämlich 36 Psalmen ab Psalmen 101, aber auch einige außerkanonische Psalmen. Wie bekannt, stellen sie eine gegenüber MT unterschiedliche Reihenfolge der Psalmen. Deshalb konzentrierten sich die meisten Forschungen bis jetzt darauf. In dieser Handschrift sind aber auch gegenüber MT bzw. LXX eine Menge eigene Lesarten vorhanden. Diese Lesarten und deren Bedeutung in der Textkritik und der Textgeschichte wurden noch relativ außer Acht gelassen. Der vorliegende Beitrag wollte diese Variante systematisch analysieren.

Nach der Edition von Eugene Ulrich finden sich etwa 375 Varianten in der Handschrift. Zunächst wurden die Varianten mit MT und LXX verglichen. Vor allem ist erkennbar, dass sich die Textform des MT schon in dieser Zeit von den anderen einigermassen abgehoben war. Der Text von 11Q5 spiegelt aber an vielen Stellen eigenartige Textvarianten, d.h. 11Q5 spiegelt eine vermutlich sowohl von MT als auch von LXX unabhängige Textform wider. Trotzdem gibt es an vielen Stellen die Übereinstimmungen entweder mit MT oder mit LXX. Die Textformen der Korrektur (11Q5<sup>corr</sup>) stellt nichts anderes dar. Daraus ist vorstellbar, dass die Verschiedenen Textformen in der Zeit von 11Q5 vorhanden waren und miteinander influieren. Auf jeden Fall stellt 11Q5 im Vergleich mit MT und LXX textkritisch eine sehr wichtige Textform dar. Deshalb müssen die Varianten von 11Q5 an den jeden Stellen sorgfältig textkritisch überprüft werden.